

종합



해군 초계함 침몰

4가지 의문점

영산강 7공구 사업 내달 '첫삽'

치평동 광주천 합류지점 ~ 북구 용산교 구간

내년까지 771억 투입 ... 자전거 도로 등 설치

영산강 살리기 사업 중 광주구에 해당하는 '영산강 살리기 7공구 사업'이 다음달 착공된다.

28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오는 2011년 까지 모두 771억 원이 투입되는 7공구 사업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천 합류지점에서 북구 용산교 용산교까지 14.08km 구간에서 시행된다. 이 구간 내 강폭을 넓히는 등 주변을 정비하고, 둔치에 자전거도로도 29.44km와 산책로 17.5km를 설치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광주시는 이 구간의 하천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천바닥을 준설하지 않을 방침이며, 하중도(河中島) 복원과 어도, 계절경관원, 데크 산책로 등 시민 친수공간도 설치할 예정이다.

청과 대형공사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음달 초 최종 낙찰자가 결정되면 곧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턴키(Turn Key)로 발주된 2공구(죽산보), 6공구(승촌보)와 일반 공사로 발주된 3공구, 10공구는 순조롭게 진행

되고 있다"며 "나머지 5개 공구도 4월 중 착공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 1조4454억 원을 투입해 담양에서부터 영산강 하구언까지 134.5km를 10개 공구로 나눠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된다. 10공구 중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7개 공구, 전남도 2개 공구, 광주시가 1개 공구를 시행하며 이 가운데 광주 지역은 6공구(19.7km)와 7공구(14.08km) 등 2개 공구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북구 효령노인복지타운 문연다

목욕탕·물리치료실 등 갖춰 ... 내달 1일 개원

광주시 북구 효령동 효령노인복지타운이 다음달 1일 개원한다. 효령노인복지타운은 총 사업비 229억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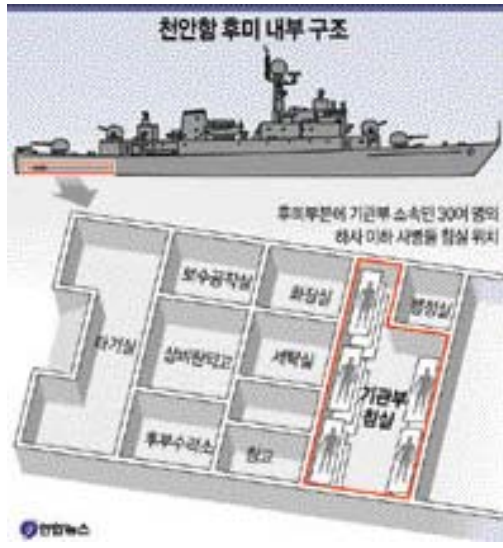
투입됐으며, 10만3천594㎡의 부지에 연면적 4천61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다.

효령노인복지타운 내에는 도예제작과 지역산업체 연계 공동작업, 화해사업, 영농사업 등 일자리 지원시설과 교육장, 목욕탕,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등 여가문화시설이 갖춰졌다. 이외에도 정보화실, 자원봉사자실, 공연장과 노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파크볼장(9홀), 게이트볼장(2면), 테니스장(2면), 다용도운동장 등도 설치됐다.

1일 오후 2시 열리는 개원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과 시의원, 노인회 광주시연합회장 및 지회장, 시민 등 1천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효령노인복지타운 개원으로 광주의 남북에 노인 전용 복지시설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1천200t급)이 침몰한 지 28일째 사흘째를 맞았지만 침몰 과정과 사고원인 등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1천200t급 함정이 20분만에 60% 침수=함침은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천안함의 선미 부분에서 강력한 폭발음이 발생한 뒤 20분만에 함정 전 구역의 60%가 침수됐다고 설명했다. 초계함은 유사시 함정의 생존성 보장을 위해 크고 작은 격실 100여 개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일정 구역을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번에는 폭발이 있고 난 다음 20분만에 전체의 60%가 침수되어 물에 뜨는 선박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상실됐다.

◇70분간 함정에서 어떤 일이=함침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폭발시간이 26일 오후 9시30분이라고 설명했다. 애초 함침은 오후 9시45분에 원인 미상의 폭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폭발로 엔진이 정지되고 함정내 전력이 끊기면서 통신기기 전원이 차단되자 함정은 휴대전화로 육상 기지로 사고 소식을 알렸다. 이에 해군은 오후 9시41분 백령도에 있는 고속정 4척에 출동지시를 내렸고 9시58분에 사고지점에 도착했다. 이어 오후 10시20분 잠수함 초계함 린스할기 1대가 이륙해 1시간 뒤에 도착해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침몰하는 함정 위에 있던 승조원을 구한 것은 해경이었다. 현



백령도 해상에서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지 사흘째인 28일 오후 해병대원들이 백령도 잠초포에서 수색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②70분간 함정서 뭐했다

③침몰 원인 제각각 이유

④탈출 훈련 제대로 했다

장 근처에 있던 해경정이 오후 10시40분에 천안함으로 다가가 승조원 58명을 구조했다. 고속정은 손을 쓰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함정의 신고에서부터 해경정이 구조할 때까지 70분간이면 승조원 대부분을 구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함정이 3시간에 걸쳐 침몰했다는 주장하고 있다.

◇폭발당시 설명 엇갈려=천안함은 강력한 폭발로 선체가 두 동강이 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원일 함장이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런 사실을 공개했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전날 백령도에서 해난구조대(SSU)와 해병대를 격려하고 돌아온 뒤 기자들과 만나 "함정이 반으로 갈라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판단은 최초 열상감시

장비(TOD)로 확인했을 때 그런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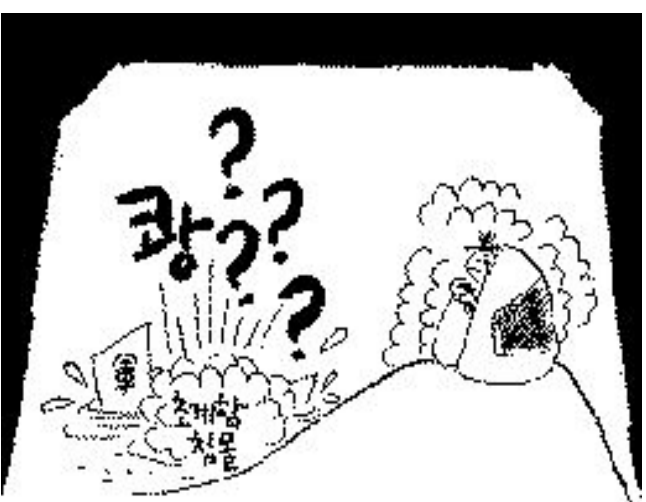
함장과 김 장관의 주장은 원인 미상의 폭발로 선체에 파공(구멍)이 되어 침수되기 시작했다는 애초 함침 발표와 다른 내용이다. 또 폭발 원인에 대해서도 함장과 생존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함침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폭발에 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분석하는 모습이다. 사고를 전후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나 포획되지 않았고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대북 'SI(특별취급)첩보'도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함정 탈출훈련 제대로 했다=군기가 생명인 해군 함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승조원이 46명이나 실종된 것에 대한 궁금증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평소 작전훈련에만 주력하다보니 위기메뉴얼에 따른 함정 생존훈련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1989년 취역한 천안함의 선미 아랫부분 탄약고에 있던 76mm 함포탄과 어뢰가 노후화로 인해 폭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사고 직후 다른 초계함인 속초함이 공중의 고속물체를 향해 5분간 경고사격을 했으나 새때로 추정했다는 군의 발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반잠수정이 인근에 출몰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김종두



원인규명은 커녕 갈수록 의문만...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결산광고 접수안내
공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 227-9600
FAX : 227-9500

합병 공고
유성산업 주식회사(갑)에서는 서기 2010년 03월 24일, 주식회사 대송(을)에서는 같은 달 24일 각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 부활 승계하고 "주식회사 대송"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이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이월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 번호: 2010-18
건명: 의료폐기물처리 위탁영역
원정예산액: 10,033,311(14:000)
본입찰: 10,041,011(16:000)
입찰일시: 10.04.02(14:00)
주소: 본 병원 본관 10층 회의실

무인빌 매각공고
◆대상
- 위치 광주 북구 유동 105-1외 (LG서비스 센터 뒷)
- 매매가는 상담 후 결정
◆특장점
- 최근에 신축한 시설이며 객실은 20개임
- 도로에 인접해 있어 고객이용이 편리함
- 인테리어는 최고의 품질을 자부함
- 매출 수익보장, 유동인구 많음
- 홈페이지 개설운영, 최첨단 드라이브인

회사매각공고
◆위치
- 광주 광산구 오선동 270-112번지 (하남산단 6-7번 도로 사이)
- 삼산알미늄(주) 알미늄제조(압출) 공장
- 연매출액 100억
◆특장점
- 하남산단 위치하며 공장시설은 최신설비이고 자동화 시스템임
- 공장은 법인(영업권) 포함하여 일괄매각함

第34期 決算公告
재무상태표
(2009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원)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자본총계 123,483,310,579